

## 기독교상담에서 신학복원을 위한 제언

안 경 승\*

### 국문초록

논문은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 신학이 조금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학의 정의와 개념을 통해 신학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확인한다. 전문신학과 일반 그리스도인의 신학이 상호 도움을 주는 가운데 신학적 성찰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필요하다. 기독교상담과 신학이 관련되는 영역을 우선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상담에서 주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과 상황에 관한 분별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능해진다. 기독교 세계관은 상담자가 활용하는 이론과 실제 이면의 가정과 철학을 통찰하여 올바른 활용을 하게 한다. 또한 논문은 가치관이 신학에 근거해야 하고 이것이 상담에서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신학이 상담에 적용되는 과정을 세분해 본다. 준비된 이론, 실천, 이론, 그리고 다시 실천이라는 흐름을 제안하고 그 출발에서 마지막까지 신학적 성찰을 개입한다. 논문은 정체성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이 네 단계가 기독교상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신학,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정체성

---

\* 아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2023년도 아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기독교상담은 상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조합된 표현이다. 그러기에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이론과 실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기독교적 상담 내지 기독교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담이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기독교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독교상담은 꾸준히 기독교상담이기 위한 정체성 확립과 실제적 상담과정과 구체적 기법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독교를 상담에 연결하고 풀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통합’이라는 학문의 분야도 소개되고 있다. 기독교를 통합하며, 아니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영혼돌봄에 현대 상담학을 통합하며 기독교상담이기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적어도 기독교상담과 관련한 문헌이나 학술연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원이나 표현들은 성경, 신앙, 기도, 공동체, 용서, 기독교인, 고백, 죄, 은혜의 방편 등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개념과 내용을 담아내며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화한 학문인 ‘신학’은 표현이나 내용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이론에 근거한 실재가 구현되는 기독교상담의 현장 역시 신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단지 신학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상 상담을 이끄는 본질이고 이에 기반해서 다양한 개념을 활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학의 부재가 이론과 현실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면, 일반 상담학이나 심리학의 토대와 이론이 중심이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개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 여러 가지 상담기법은 소개되지만 기독교의 자원 활용은 위축되어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신학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점과 진리의 체계적 적용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라면 신학은 복원되어야 한다.

논문은 기독교상담에서 신학 복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신학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여 신학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이 기여하는 바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상담적 적용에서 찾아본다. 논문이 집중하는 분야는 목회상담이 아닌 기독교상담이다. 이 두 분야는 정의, 범주, 내용 등에 있어서 여러 포괄적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논외에 돌린다. 목회상담은 일반적으로 목양을 위한 목회자의 상담이라는 협의의 이해를 수용한다. 목회 상담학 내에서도 신학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목회상담 현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높다. 하지만 목회 상담자의 역할을 주도하는 목회자는 이미 신학을 수학한 이들이기 때문에 신학을 직·간접으로 개입시킨다고 본다. 비록 기독교상담의 학문과 실재를 담당하는 주체가 다양한지만,

논문은 전반적인 흐름에서 기독교상담에서의 신학복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신학과 삶의 현장

#### 1) 신학의 보편성

신학(theology)은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스(theos)와 이성, 지혜 혹은 사고를 의미하는 로고스(logos)로 형성된 단어이다. 신학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생각’ 또는 ‘하나님에 대한 추론’을 뜻하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유래된 용어는 아니다. 초기 교부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2세기 후반의 신학자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Clement는 이교도 작가의 미톨로기아(mythologia)와 구별하여 기독교의 테올로기아(theologica)를 언급했다. 신학이 이교 신화와 차별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 한 것이다(McGrath, 2016: 20).

역사가 지나면서 신학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하나님에 관한 의문을 포함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체계화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고백의 내용으로 발전한다. David F. Wells(2006: 166)는 신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우선 신앙 고백적 요소를 언급한다. 신앙 고백은 교회가 신앙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신앙고백에 대한 성찰, 이 두 요소에 기초한 일정한 미덕의 개발을 신학 요소로 정리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Wells, 2006: 167-168). ①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와 의지를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 가운데 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섭리하신 사실을 분별하여, 현재의 교회라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무게 중심을 찾아야 한다. ③ 신앙으로 고백 되는 내용과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신학이 강조하는 두 번째 요소는 성찰이다. 신학적 성찰은 하나님 지식에 대

한 속고와 함께 인간과 창조 세계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이다(Grenz & Olson, 1999: 55).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이해가 그 분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한다. 또한 하나님 지식이 지금 여기의 우리 삶의 지평에서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자들은 신학을 정의 내리면서 신학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란 설명으로 확대하고 있다(Grudem, 2009: 19-26).<sup>1)</sup> 인생과 세계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가운데, 삶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성찰한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이뤄지고 그런 성찰이 지식의 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성경적인 기독교 진리에 근거하도록 만들어 준다.

셋째, 신학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성찰 그 이상의 삶의 변화이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다양한 현실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성찰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또한 신학이 지식과 사유의 폭을 넓고 깊게 하며 삶을 위한 지적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Grenz, 2000: 30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한다.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기 쉬운 시대적 조류 속에서 지혜를 길러 주고 삶을 질서 있게 살게 한다. 지식 뿐 아니라 지혜를 아우르는 진리의 현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리된 신학의 결과물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져온 기독교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게 한다(Grenz & Olson, 1999: 45). 이것을 Wells(2006: 166)는 신학의 세 번째 필수적 측면으로 미덕의 개발이라고 설명한다. 신학의 영역이 곧 진리의 영역이며 고백(confession)의 내용이 정통 교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reflection)과 덕목(virtue)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학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 됨의 성품을 갖게 하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지성의 변화와 함께 영성을 풍성하게 하며 결국 성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Crabb, 1993: 29).

건강한 신학은 실제적 열매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신학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니 이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학이 있다. 그래서 신학은 할 수도

1) 신학에 관해서 연구하고 글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탐구를 몇 가지 근본적인 신념들 혹은 관련된 주제로 나누고 있다. 신학적인 주제 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신론), 인간과 창조된 우주(인간론), 예수님과 구원(기독교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성령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교회론), 종말 혹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종말론).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엮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어떤 틀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Wells, 2006: 23). 그리고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반응한다.

권수영(2007: 21-22)은 신학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신학은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협의의 개념에 벗어나서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고 실행하는 내면의 삶의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의 의식을 가지며 그 영향에 의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행동한다. 기독교인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표명되는 삶을 살아간다. Virginia T. Holeman(2014)은 자신의 신학 수학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풍성해진 상담적 역량을 기술하고 신학적 성찰에 근거한 상담 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상담 교과과정에서의 신학 수업의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다.

## 2) 신학의 필요성

신학은 신학자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 신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며 어느 시점, 어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이 깊어지면 삶의 의미와 목표를 묻는데 까지 발전한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고난은 찾아오는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하게 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좋겠지만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찾게 된다. 그 답변의 단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것이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의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점점 신앙은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빠져 버린다. 자신만의 신앙은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신앙의 내용이 단순한 민속종교에 머물 수 있다(Grenz & Olson, 1999: 10). 신학적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문화를 통해 밀려오는 갖가지 사조에 흔들린다. 심지어 왜곡된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도 생기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하나님의 말씀, 은혜, 믿

음, 기도, 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마음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고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신학은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평신도 신학자와 전문적인 신학자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Stanley J. Grenz와 Roger E. Olson(1999: 28)는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 '성찰'(reflection)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학을 크게 민속신학, 평신도 신학, 목회신학(조금 더 전문화된 신학의 영역으로 전문신학과 학술신학이 있음)으로 구분한다. 민속신학에 머문 사람들은 성찰이 부족해서 검증이나 조사와 같은 과정이 없고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 버린다. 목회신학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심도 있고 일관된 성찰을 통해 역사적 안목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분별 그리고 조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 지성과 마음을 동원해서 신앙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성찰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생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숙고한다. 성찰한 사고가 신앙과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

일반적으로 규정짓는 신학자들의 학술신학은 평신도 신학자들에게 성찰의 범주와 내용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평신도 신학자들은 신학하는 일을 성숙시키기 위해 전문 신학자들의 성경 연구, 역사적 안목, 그리고 연구를 위한 도구 활용에서 도움을 받는다. 실천신학 같은 경우는 학자마다 강조점은 다르겠지만 방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심 과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유익을 준다 (Osmer, 2012: 27-28). 실천적 과제는 기술적-경험적 과제(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석적 과제(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규범적 과제(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실용적 과제(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이다

## 2. 기독교상담과 신학

신학의 보편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보면 기독교상담 현장과 기독교 상담자에게도 신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기독교상담의 모든 영역에 신학은 관련된다. 대부분의 일반 상담 현장은 최종 목표를 자기(self)의 회복에 목표를 두고 이를 토대로 회복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교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인간됨의 내용을 찾지는 않는다. 기독교상담 현장 역시 단지 자기실현에 목표를 두게 된다면 신학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묻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담자(상담자 포함)로 지칭되는 인간과의 관련성 탐색, 하나님과 호소문제의 관련

성에 관한 분별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곳에 신학의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과 인간과 관련한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통찰하는 능력이 상실된 기독교 상담 현장이 많아질수록 신학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타당성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책맹(冊盲)이란 말이 있다. 책맹이 늘어나는 시대가 될 때, 책을 저술하거나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 기독교 상담자는 일종의 독자이다. 신학은 독자를 위해 정리되고 제시된다. 그러나 독자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신학은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 작곡가나 독서를 하는 사람이 없는 저술가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사라지고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성경 인용만 남은 기독교상담의 현장이라면, 신학은 교회의 강단과 신학교에서만 그 존재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Jay E. Adams(2002: 20)는 신학과 상담을 분리한다는 것이 마치 몸과 영혼의 분리와 같은 것이고 신학 없는 상담은 죽은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의 적용이 이뤄지는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해 본다.

### 1) 통합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일상의 삶과 일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수 많은 것들에 대해 분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신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지만, 항상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보는 구체적인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Denney, 2007: 1-4). 예수님은 성경 계시에 따라 자신을 설명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이해했다. 다시 말해 신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과 목적에서 비롯된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세계관은 예수님이 말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Wells, 2006: 24).

Arthur F. Holmes(1991: 60)는 ‘세계관적 신학’(worldviewish theology)을 주장하며 신학에 근거한 세계관이 영구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서부터 삶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증거된 창조와 인간에 대한 설명은 일상의 삶, 도덕적 가치, 심미학, 문화비평이론, 인격 이론에 적용된다. 또한 노동, 상업, 여가 선용, 예술과 지각과 자연과 과학기술과 사회변동과 사회제도와 성(性)과 우정과 정치

와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신학은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들 사이에서 기독교 진리를 분명히 정립하며 세계관의 기초를 마련하게 해준다. 세상은 각가지 세계관에 근거한 수 많은 지침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내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기독교 가르침을 분별해야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과 삶을 살아야 한다. 참된 믿음(정통)의 특징을 알아야 거짓 가르침(이단)을 분별하여 거부할 수 있다. 신학은 우리를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움으로써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엡 4:14) 않는 성숙하고 견고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

기독교상담과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개입된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은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상담은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그 내면 세계를 탐색하게 된다. 이 탐색의 내용에 상담자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별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전제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철학적 가설에 근거해서 상담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자신이 가진 전제와 철학을 무시하는 것은 내담자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게 하고, 자칫 왜곡에 빠질 위험도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인간의 본성, 인간의 추구하는 목표, 삶의 의미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제와 철학을 찾아내고 분별하며 이것이 상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은 내담자가 씨름하고 있는 그의 삶과 둘러싼 세계를 고찰하는 해석 구조로 기능한다. 신학의 해석 역량이 준비될 때 기독교적 시각을 통해 내담자와 그 내담자가 씨름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 통찰력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며 개입하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독교적 시각으로 내담자와 그의 삶을 살펴볼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고 그 세계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Grenz & Olson, 1999: 140). Heath B. Lambert(2016; 17)는 '상담은 신학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상담과 신학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상담이 삶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관점은, 즉 세계관은 신학을 필요로 하고 신학은 세계관으로 적용된다.

기독교 상담자는 충실하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진 사고, 열망, 욕구를 탐색한다. 그를 둘러싼 시스템을 분석하고 조사하며 거기서 작용하는 특정한 세계관이나 신앙의 내용을 통찰한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념이 드러나면 그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대안을 준비한

다. 기독교 상담자는 문제를 알고 대화를 통해 거기에 참여하며, 각 문제의 신학적인 차원을 파악한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 이면에는 실제 작용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대안은 어떤 갈 길을 제시하는지?” “기독교적 이해가 어떤 해결책이나 해답을 주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 가면서 내담자의 신념, 가치, 태도, 관계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관점과 목적과 안내를 준비하게 된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상담자가 사용하는 상담기법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세계관의 강조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의 기본적 구성에 대해 가지는 있는 전제(가정)”(Sire, 2007: 23)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기법 자체 만이 아니고 그 이면의 전제와 중요한 신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 상담자가 기독교인데 인본주의적인 전제들을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가장 두드러진 명제 중 하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상담기법이 유용성과 실증성의 가치로만 평가되고 분명한 검증 없이 사용된다.

현대 상담기술의 근거로 연구되는 심리학은 철학의 흐름 속에서 가치를 치고 등장했다. 심리학의 초기 연구는 의미와 목적을 담은 철학적 질문과, 사실을 다루는 과학 연구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없었다.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고대부터 이어온 철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동반자로 여겨졌다. 철학에서 질문하는 인간의 윤리성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심리학이 제공하는 인간의 내면 작용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심리학은 의미와 목적을 질문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기계적 작용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의 질문이 중요하게 여겨졌다(Atkinson & Bridger, 2002: 90).

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학문들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와 목적을 묻기보다는 내면의 작동과 고장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심리학과 일반 상담은 철학이라는 태생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과학의 가설과 방법으로 학문과 실재를 발전시켜 왔다 해도 드러나 있든 숨겨져 있든 철학과 전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Corey(2012: 24-25)가 지적하듯이 치료법은 상담자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담자의 철학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에 따라 그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치료의 목표, 그리고 기술들은 각각의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

상담의 모든 과정에 인간됨, 갈망, 의미 그리고 목적과 관련한 가설이 있다. 상담자의 과제 중의 하나는 그 가설들을 추적하고 정밀하게 조사하는 일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단지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평가하고 분별하고 통합하게 된다. 세계관에 따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되고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며 개입의 대안을 세우고 상담의 과정도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상담자가 제한적이고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상담자가 실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효과를 가져오는 상담 방법을 활용하다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 철학적 전제를 개입하게 된다. 전제는 전제이고 방법은 방법이라는 이원화로 인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Collins, 1996: 19-20). 이러한 사상과 철학의 오류를 분별하고 무분별한 세계관에서 기인한 왜곡된 방법을 걸러내야 한다. 또한 일반은혜로 허락한 인간 이해의 다양하고 풍성한 자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추려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신학을 필요로 한다.

## 2) 개입을 위한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이 기여하는 또 다른 영역은 기독교 가치관이다. 내담자 개인과 그가 가져온 호소 문제에는 시대와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자신이 소화한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현대화와 세속화의 영향은 삶의 여러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잃게 한다. 하나님은 주변인으로 취급되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는 삶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흐름은 가치관의 뿌리에 윤리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도덕질서에 대해 꺼려하고 암묵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가진 현대의 흐름 중에 심리학이 있다. 도덕적 가르침의 기준이 실용주의로 대체되고 자아 추구하고 자아 만족에 따른 자기 성취가 행복의 목적이 되어버린 새로운 문화가 기독교상담에 파고드는 순간 신학이 제시하는 인간됨과 삶의 가치는 모호해진다.

신학은 다양한 현실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가치로 세상과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시 말해 도덕을 견지할 능력을 가진 신학을 구현한다는 것과 도덕적 인간됨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도덕 기능이 신

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신학의 붕괴는 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 아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간됨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가 인간됨과 그에 따른 회복과 관련 없이 여겨지는 기독교상담 현상이 많아질수록 신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성은 없어져 버린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벌어졌고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학문적으로 있었다(안석모 외, 2009). Don S. Browning(1976: 108-109)은 특별히 목회상담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윤리 규범의 부재라고 지적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 중의 하나가 심리학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철학과 전제에서 세워진 심리학이 윤리 체계로 작용하는 것을 간과했다. 당연히 대화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다. 점차 기존의 도덕 체계는 무너지고 심리학의 윤리 규범이, 즉 인간에 대한 낙관성, 윤리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아 중심의 가치가 종교가 되어 버렸다.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가치관이 상담에서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우선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가치관을 탐색한다. 각자의 가치관이 아닌 지향해야 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신학적 토대 위에서 구축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안석모 외, 2009: 311-315). 기독교 상담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분석할 가치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이것을 상담의 전 과정에 적용한다. 더불어 결국은 제시하고 개입해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설득하는 역량 역시 필요하다. 또한 신학의 기능을 통해 살펴 보았듯이 신학의 본래 목적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품과 미덕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기독교의 도덕질서에 대한 통찰과 함께 이것이 성품으로 체화되어 그 사람됨을 통해서 흘러가는 관계적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상담적 적용

상담 현장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하게 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펼쳐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쉽지 않은 질병에 시달리는 가족,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이웃, 충격적인 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사건 등. 위기에 직면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그동안 매일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게 된다. 그동안 어렵פות이 질문은 해봤지만 실제로 묻고 답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믿어 왔던 것이 무엇인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산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Atkinson & Bridger, 2002: 28).

여기에는 주로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많다. “왜 나에게?”에서 시작해서 “왜 고난은 찾아오나?” “왜 관계가 틀어지기만 하나?” “나는 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나?” 또한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이 일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는가?” “신은 있는가? 있다면 세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살다 보면 나아지는 것은 있는지, 미래는 괜찮을지? 기대와 소망을 가져도 될지...” 등.

상담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답은 많이 제시된다.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함께 머물러 주며 견디게 도와주는 그런 만남도 도움이 된다. 기독교 상담자 역시 일차적으로 힘들어 하는 당면한 위기를 헤쳐 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꽤 마셔도 갈함이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있다. 내담자가 묻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변치 않는 진리, 영원의 소망, 신념, 가치관, 의미, 지혜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적 기술과 언어에만 그치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치료적이 아닌 신학적인 대답을 찾고 있다(Grenz, 2000: 301).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싶어한다. 죄인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도 경험하기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 듣는 사람이 없어진다. 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찾아 왔고 기독교 상담자는 신학적 성찰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실존적이고 궁극적인 질문들을 드러내고 마주한다. 그리고 내담자 자신과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작업을 실행할 뿐 아니라 경험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질문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신비와 기다림의 영역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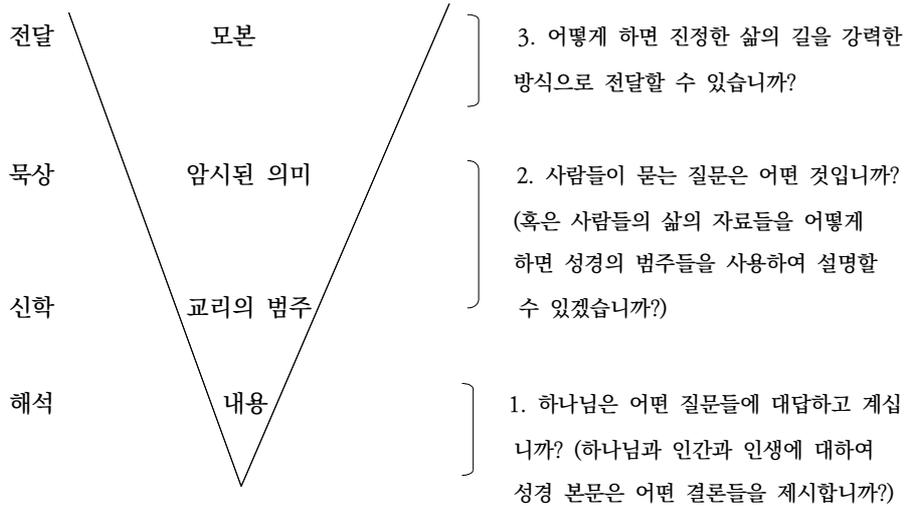
더불어 기독교 상담자는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다양한 주제들을 당면하게 된다. 상실, 죽음, 관계, 죄, 신앙, 인간됨, 하나님 이해에 관한 것이다. 매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갖가지 의문과 고민을 나누게 된다. Lambert(2016: 18)는 상담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로 “해답과 해결책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상담은 신학의 진리에서 알게 된 해답과 해결책을

삶의 다양한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신학적 지식 자체가 상담을 위한 것이고 신학적 신실함에서 배어 나온 말로 대화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성경이 답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주제들로 범주화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주제별로 구분하여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신학이다. 예를 들면 William Oglesby(1980)는 상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 연구를 통해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나 앞보다는 존재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현장에서 펼쳐지는 성경의 주제를 양극의 성향을 가진 에릭슨의 발달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한다. 첫 번째 하위주제는 초청(initiative)과 자유(freedom)이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에로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초청과 그 초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이다. 기독교 상담자가 상담 현장으로 내담자를 초청하고 그 초청에 반응하는 내담자의 거부 또는 수용의 자유를 적용한다. 두 번째는 두려움(fear)과 믿음(faith)이다. 두려움이 사람들을 마비시키며 어려움을 주지만 믿음은 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여기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서 있다는 것("나는 여기 있습니다")이 중요하고,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통해 연습되는 "믿음"의 결과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한다.

세 번째는 순응(conformity)과 반항(rebellion)이다. 수용적인 행동 뒤에 사랑과 호의를 얻으려는 순응의 주제를 가진 내담자와 자신의 도발적 행동을 하는 반항자의 유형도 만나게 된다. 네 번째는 죽음(death)과 부활(rebirth)이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린다. 다섯 번째는 위험(risk)과 구원(redemption)이다. 상담자는 위험을 분별하고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 하위주제를 더하는데, 이름짓기(naming)과 이름받기(being named), 의존(dependence)과 독립(independence), 개인성(individuality)과 공동체(community)이다.

Larry J. Crabb(1993: 94-109)은 기독교 상담자가 성경에서 시작해서 신학적 성찰을 거쳐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다.



힘들어하는 내담자를 돕는데 유용한 성경 말씀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신학적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 기독교 상담자는 임상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주제가 상담 과정에 하나의 방향성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자가 그동안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상담현장에서 펼쳐지는 내담자의 문제, 그 이면의 그의 믿음 체계, 삶의 방식, 기능 수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신학적 성찰을 도모한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삶의 한 부분에 연결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숙고하고 반복해서 이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지혜롭고 설득이 가능한 방법으로 회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이 모든 과정에 성경 해석과 신학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깊이 묵상할 때 그 가치를 더한다. 신학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마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를 바라면 꾸준히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과 같다(요 7:37-38, 15:7). 신학적 성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 알고 마시게 할 물의 흐름도 없을 것이다. 이 성찰의 내용에는 호소를 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숙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그것을 지속시키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경의 관점과 신학의 내용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알고 통찰한다 해도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그것을 내담자 자신의 형편에서 적용하는 것을 돕는다(Collins, 1996: 94). 기

독교상담이 신학의 학문적 결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실천 현장에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여기 있다. 그것은 내담자에게 이해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효과적 방식으로 만나고 전달하고 적용하려는 점이다(Hardin, 2015: 96).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통이다. 내담자의 깊은 동기나 궁극적인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제안하고 대화를 하며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Nauta, 2002: 202).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돌봄의 대표자이자 신학을 실천하는 한 신자로 성찰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공유해야 한다. 너무 강한 외골수의 태도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답만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내담자가 듣기에는 아프고 고민해야 하는 이야기에 아무런 해답 없이 지나가고, 다른 상담적 기법으로만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적용적 과정을 수행하는 기독교 상담자들은 이미 실천신학자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연득(2014)은 Browning의 실천신학 방법론을 소개하며 상담은 이론의 실천적 적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실천에서 이론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을 가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론이 기독교상담에도 유용하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독교 상담자가 실천 현장에서 부닥치고 제기되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실재를 보는 신학적 안목이 준비되어야 한다. 실천이란 단어인 프락시스(praxis)는 독시(doxo) 다시 말해 신학을 근거로 한 실천이다(양현표, 2023). 그동안 기독교 공동체 내의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유용성이 진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용주의나 물질이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주의에 근거한 실천양식이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사상이 파고들 위험과 함께 단지 경험과 문제에 근거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수용하기 힘든 방법론이 활용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진정한 프락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의 체계 위에서 현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실천에서 제기된 주제를 가지고 신학의 범주와 해석으로 통찰을 도출해 낼 때 무엇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가치인지에 대한 분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신념 체계를 성찰하여 보고 내담자의 신념체계와 내담자의 실제적 자기 이해, 삶의 방식, 기능 및 행동 양식과 일치하는 점과 또 일치하지 않는 점은 무엇인가를 성찰한다. 그래서 그 내담자 자신만의 삶의 자리에 대한 관심으로 신학적 성찰을 시작한다. 여기에서 이 상담 경험을 통하여 떠오르는 어떠한 신학적 개념이나 주제 그리고 성경 구절 등을 가지고 재성찰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삼는다. 물론 상담은 만남의 현장이기 때

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경험이 그들 각자의 신념체계, 하나님 인식 등에 어떠한 영향이나 도전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도록 인도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붙잡아야 하는 바른 가치를 개입해야 한다.

이런 실천방법론을 참고하여 기독교상담 과정에 신학을 개입하는 전체적 흐름을 '정체성'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준비 영역'으로 상담자가 성경과 신학을 통해 접미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내용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특별히 인간론과 관련한 주제이다. 상담은 인간을 만나고 대화하고 돕는 학문이다. 가장 중요한 상담 학문의 주제는 인간이다(Adams, 2002: 129). 인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독교상담을 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Boyd(2006: 180-181)는 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주제를 상담 부서에 일임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영혼의 자리를 자기(self)로 대체한 인간관이 단지 일반 상담에서만 이 아니고 기독교상담에서도 자리잡았다고 말한다.

신학적 인간론으로 준비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할 수 있다(Wolters, 1985).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왜곡된 것을 구속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세계관의 공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인간에 대한 설명 역시 가능하다. 창조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 이원적 전인성(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 그리고 창조명령 및 문화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왜곡된 인간 본성의 죄성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이다. 인간 본성은 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마땅히 돌아가고 연결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죄의 노예됨으로 인해 선한 것을 선택한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로 영적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구속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의 구속의 사건,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 됨의 확인이다.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견게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이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다.

둘째, '실천 현장과의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정체성은 단지 하지 못한 숙제로 머물지 않고 왜곡된 자기상을 만들어 내며 실제 삶의 내용과 기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는 A라는 청년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린다.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움츠러들었고 우울 정서가 가득하다. 학업이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다시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용기를 갖지 못한다.

P라는 내담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불만이다. 정작 만남을 갖고 사람들과 교제 할 때는 말의 실수가 많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는 자신이 싫어지고 지레짐작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각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과 대안이 다양하겠지만, 제기되는 상담적 주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런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통합적 성찰의 내용은 ① 기독교 신앙 체계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자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지속되는 질문이며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풀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사람들은 피해 가기 어려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신학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 이해, 구성요소를 제공한다(Grenz & Olson, 1999: 146-147). 개인의 정체성은 인간을 만드시고(창조)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신학은 인간의 정체성이 타락으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시켜 준다. 구속으로 인해 인간 존재의 중심은 개인의 자아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 그리고 공동체 내의 영혼으로 옮겨가게 된다.

② 가치관에 대한 이해이다.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핵심요소로 기능하는 것이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 옳고,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 진리가 희미해지고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치관의 기준을 ‘갈망’에 두려는 정의도 등장한다. 즉 가치관이 “개인으로서 인간의 갈망과 전체로서 사회의 갈망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된다(Braithwaite & Scott, 1991: 661). 갈망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마음으로 갈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갈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지를 규정하게 된다.

사람이 갈망하며 가치를 두는 것과 그 갈망 정도는 다양하다. 또한 그 성취 여부에 따라 만족 정도가 달라진다.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해되고 느끼는지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구현되었는지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기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실현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성실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게으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근면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흡족해질 것이다. 그 만족의 정도는 가치의 무게와 그것을 성취했는가 실패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를 성취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가치가 무엇이나는 것이고 자신의 성취가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라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더 비중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마음을 두어 행동하게 하는 것이 다르다. 이 과정에서 숙고하게 되는 것은 실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A와 P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살며 그로 인해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탐색하며 이들의 문제를 분별하고 제기되는 질문과 함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신학은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분별해 본다.

셋째,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안내를 위한 신학적 성찰을 도모한다. 신학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를 확인시켜 준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 통찰한 신학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신 것에 따라 나를 정의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 목적을 포함한다 (Wells, 2006: 147).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조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실현한다. 이 사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존재가 된다.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목적을 추구하면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내가 가진 갈망, 그것으로 확인되는 가치, 내가 만족해 하는 내용 등이 점검되며 삶의 다양한 국면이 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살펴본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위해 추천되는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이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갖기 위해 자신을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쓴다. 뒤틀어지고 비하적인 자기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의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구절이다. 하지만 신학을 통해서 통찰되는 가르침은 이 부분을 재정립하게 한다. 이 말씀의 핵심 의미는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자기 사랑을 우선되는 성품으로 격려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John R. W. Stott(1993: 343)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며 우선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경의 사랑(아가페)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 사랑에는 이런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모호하다. 또한 자기 사랑은 너무나 쉽게 교만으로 발전한다. 바울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 보여지는 인간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딤후 3:2-4). 열거된 인간상에서 자랑, 교만, 자만이 같은 맥락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자기 사랑은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죄의 성향이다.

John S. Piper(1977: 6)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웃사랑을 위한 전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사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 다시 자기 사랑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이 말씀의 의도에 맞지 않다고 평가한다. 바울 역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 5:33)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 사랑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엡 5:29). 누구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돌보고 보호한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예외가 될 수 없다(Piper, 2021). 자기학대나 자살의 사례는 각 사례가 가진 다양한 측면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역시 선부른 제안이 될 수 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스스로에 상처를 주면서 치료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으로 자신의 만족을 얻는다. 자신을 돌봐주기 원하며 스스로 입힌 상처를 드러낸다. 여러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벗어 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지금 아픔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왜곡된 자기 사랑의 측면을 보여준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파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네 몸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더욱 혁신적이고 충격적이고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Piper, 2021). 자신의 갈망, 즉 행복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척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나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다면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열정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내 행복을 추구하려는 창의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웃을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창의적이 되도록 하라. 자기 행복을 위해 인내하고 견디려고 한다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있듯이 이제 같은 능력과 열정으로 이웃이 원하는 것을 섬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파격적인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사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그런 이웃 사랑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사랑을 정리하게 될 때, 기독교 상담자의 목표는 자기 사랑에 있어서는 안된다. 건강한 자기 정체성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에서 따라오는 결과이다. 불만족과 불행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자기 사랑이나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이 가치 있는 목표라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다시 실천'으로 자기 정체성의 주제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여 상담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목표를 설정하고 내담자를 위한 개입을 계획한다. 앞에서 언급한 A와 P라는 내담자의 자기 정체성과 관련한 목표를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 자기상의 변화나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것은 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은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은 그것이 결국 한계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분별한다. 자기 사랑과 자기 수용의 갈망이 그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은 채워지기 어렵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존재인 이스라엘을 거두고 돌봐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본인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허락된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Piper, 197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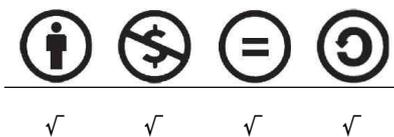
기독교상담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목표를 세운다. 잘못된 가치나 제한된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가치, 타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는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신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한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 제시된다. 타락으로 인해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 분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다.

### III. 닫는 글

기독교상담에서 신학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신학이 생소한 이론이 아닌 성찰하고 적용해야 하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도 점검해 보았다. 신학자나 기독교 상담자,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신학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점을 증명하기 위해 기독교상담에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상담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다. 준비 과정에서 실천 현장, 그리고 이론과 다시 실천 현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짚어보며 신학이 각 과정에서 성찰의 주재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분이 온전한 치유자이시고 그분의 안내가 인간을 돕는 가장 큰 자원임을 확신한다. 믿음과 확신이 상담이란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내담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고민의 내용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신학의 성찰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 여정에 기독교 상담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9일



## 【참고문헌】

- 권수영 (2007). **기독교(목회)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학과 신학의 만남**. 서울: 학지사.
- 안석모, 권수영, 김필진, 박노권, 박민수, 신영숙, 이관직, 이정기 (2009). **목회상담 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2009.
- 양현표 (2023). 복음전도에 관한 칼빈의 신학과 프락시스. **한국칼빈-개혁신학연구소 제1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 정연득 (2014). 신학함의 과정으로서의 목회돌봄과 상담. **신학과 실천**, 38, 347-377.
- Adams, Jay E. (2002). **기독교 상담신학** (류근상, 원준자 역,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경기도: 크리스찬 출판사. (원전 1979 출판).
- Atkinson, D., & Bridger, F. (2002). **상담신학** (이정기 역, *Counseling in context*). 서울: 예영미디어. (원전 1995 출판).
- Boyd, J.(2006). 자아개념: 영혼의 방어측면에서. M. R. McMinn & T. R. Phillips (편). **영혼돌봄의 상담학**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역, *Care for the soul*), 163-185.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01 출판).
- Braithwaite, V. A., & Scott, W. A. (1991). Values. In P. R. Shater, J. P. Robinson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661-753. New York: Academic Press.
- Browning, D. S. (1976)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Collins, G. R. (1996).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안보현 역,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 1993 출판).
- Corey, G. (2012).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이근배, 홍영근 역,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8<sup>th</sup> Ed.). 서울: 세계이저리닝코리아. (원전 2009 출판).
- Crabb, L. J. (1993). **인간이해와 상담**(윤종석 역, *Understanding people*). 서울: 나침판사. (원전 1987 출판).
- Denney, J. (2007). *Studies in theology*. Whitefish, MT: Kessinger Publishing.
- Grenz, S. J., & Olson, R. E. (1999). **신학으로의 초대** (이영훈 역. *Who needs*

- theology?*).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원전 1996 출판).
- Grenz, S. J. (2000). The hopeful pessimist: Christian pastoral theology in a pessimistic context. *Pastoral Care*, 54(3), 297-311. <https://doi.org/10.1177/002234090005400307>
- Grudem, W. A. (2009). **조직신학: 성경적 교리학 입문서(상)** (노진준 역, *Systematic theology*). 서울: 은성. (원전 1995 출판).
- Hardin, T. (2015). Becoming a more biblical counselor: A guide for lay counseling students. *Puritan Reformed Journal*, 7(1), 195-206.
- Holeman, V. T. (2012). *Theology for better counseling*.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Holmes, A. F. (1991).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역, *Contours of a world view*). 서울: 엠마오. (원전 1983 출판).
- Lambert, H. (2016). *A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 McGrath, A. (2016). **신학의 역사** (소기천, 이달, 임진, 최춘혁 역, *Historical theology*). 경기도: 지와 사랑. (원전 1998 출판).
- Nauta, R. (2002). Not practising theology. *Pastoral Psychology*, 50, 197-205. <https://doi.org/10.1023/A:1012900821324>
- Oglesby, Jr. W. B. (1980). *Biblical themes for pastoral car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 Piper, J. (1977). Is self-love biblical? *Christianity Today*, 21(21), 6-9.
- Piper, J. (1978). Self-love and the Christian's counselor's task. *The Reformed Journal*, 28(5), 13-18.
- Osmer, R. R. (2012).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김현애, 김정형 역, *Practical theology*).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원전 2008 출판).
- Sire, J. (2007).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The universe next door*).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원전 2004 출판).
- Stott, J. R. W. (1993). **그리스도의 십자가** (황영철, 정옥배 역, *The cross of Christ*).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원전 1986 출판).
- Wells, D. F. (2006). **신학 실종** (김재영 역, *No place for truth*).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94 출판).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Piper, J.(2021. 9.29.) You don't need more self-love. <https://www.desiringgod.org/interviews/you-dont-need-more-self-love>에서 2023.9.12. 인출.

**[Abstract]**

## Suggestions for Restoration of Theology in Christian Counseling

Ahn, Kyung Seung\*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ology should play a more important and fundamental role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counseling. It confirms the universality and necessity of theology through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ology. Theological reflection is necessary for all Christians while professional theologians and lay Christians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their theological understanding. Moreover, the areas related to Christian counseling and theology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hristian worldview. Theology shapes the Christian worldview, and the Christian worldview plays a leading role in Christian counseling in at least three areas. First of all, discernment about human beings and situations becomes possible through a Christian worldview. The Christian worldview provides insight into the theories, assumptions, and philosophies counselors utilize enabling correct application. Furthermore, it states that Christian values should also be grounded in theology and that this is involved in counseling. Finally, it breaks down the process of applying theology to counseling. It suggests a cycle of prepared theory, practice, theory, and practice, highlighting the need for theological reflection from start to finish. Then, this paper tries to apply this four stages in Christian counseling, focusing on the theme of identity.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theology,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values, identity

---

\* ACT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Professor